

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

1. 기본정보

이름		학번	
파견국가	캐나다	파견도시	밴쿠버
파견대학	랑가라컬리지	기간	2018.8.5.(토) ~ 2018.8.25.(토)

2. 파견대학, 수업 및 Activity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<p>랑가라컬리지는 캐나다 밴쿠버 100 West 49th street 에 위치해 있으며 무엇보다 교통이 편리합니다.</p> <p>학교 바로 앞에 49번 정류장이 있고 도보 5~10분 정도에 skytrain이 있습니다. 또한 시설 또한 대부분 최신식입니다 하지만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 전체를 사용하기 보다는 정해진 교실에서만 주로 생활하므로 다른 건물을 이용하는 일은 잘 없 습니다</p> <p>학교안에 팀홀튼 , 스타벅스, 서브웨이가 있으며 팀홀튼의 경우 가격이 비싼 편이 아니라 가끔 수업전에 사먹기 좋습니다.</p>
수업	<p>첫번 째날,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다 같이 듣기 시험을 본 후 점수와 비율, 성별을 고려해 6개의 반으로 나눈 후 수업을 듣습니다. 보통 일본인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</p> <p>수업 방식 - 수업은 아침 9- 오후3시까지 이루어 집니다.저희 클래스는 매일 다른 사람들끼리 2~5명씩 조를 이루어서 대화를 통해 바인더를 채우는 형식으로 수업이 이루어 졌습니다 조별로 이루어 수업이 진행되서 수업에 관련된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 친구들과 다양한 주제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. 또한 수업준비는 따로 필요 없으면 첫날에 주어진 바인더만 잘 들고 다니면 됩니다..</p> <p>과제 - 반마다 다르며 매일 있는 것은 아니며 보통 학교에서 같이 가는 ACTIVITY 이후 바인더를 채우는 형식으로 주어집니다. 보통 10분이면</p>

	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것 입니다.
Activity	<p>1.Kayaking – 햇빛 엄청 뜨겁기 때문에 모자와 긴팔(래쉬가드) 꼭 입으세요!! 수건 챙겨서 목 쪽에 두르시면 좋습니다!!</p> <p>2.Discover Vancouver – Cultural Assistant와 함께 밴쿠버 관광명소를 구경합니다 이날은 수업이 없고 끝나는 시간은 Cultural Assistant마다 다릅니다.</p> <p>3.Museum Of Vancouver 견학</p> <p>4.aquarium, vancouver</p> <p>5.Whistler trip – 아침7시 까지 학교에 모인다. 산에 올라가기 때문에 걸을 필요가 스쿨버스가 생각 보다 엄청 불편하다.</p>

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<p>현지 기후 및 유의점</p> <p>여름 기후는 습하지 않고 덥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생각보다 춥습니다 또한 교실 또한 쌀쌀하기 발팔도 좋지만 긴팔도 챙기세요!!그리고 겹옷을 챙겨주세요.. 그리고 비가 2일 정도 내렸습니다 작은 우산 챙겨주세요!</p>
안전	<p>현지 안전 상황</p> <p>밴쿠버는 거리거리 마다 상황이 다릅니다. 늦게 돌아다니지 않을 것을 추천하고 특히 차이나 타운이나 게스트타운 쪽 할렘가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하지만 통금시간을 잘 지키고 사람들이 많은 곳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안전합니다</p>
숙소	<p>학교기숙사() 홈스테이(0) 외부 숙소() 기타()</p> <p>홈스테이 시설은 홈스테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이 필요합니다. 하지만 대부분 잘 챙겨주셔서 좋았습니다. 그리고 어떤 홈스테이는 일본 친구와 홈스테이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너무 편하게</p>

	<p>대해 주셔서 샤워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열쇠도 따로 주셨습니다. 밥을 밖에서 먹는 일이 생긴다면 몇 시간 먼저 홈스테이 가족에게 연락을 하는 게 좋습니다.</p>
식사	<p>학교식당() 홈스테이(0) 외부식당(0) 기타()</p> <p>아침은 홈스테이 마다 다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아침을 거의 먹지 않았고 배고픈 경우 학교 팀 홀튼을 이용했습니다. 점심은 매일 싸주셔서 도시락을 점심으로 먹었고 저녁의 경우 친구들과 거의 밖에서 먹었는데 가격이 비싸서 별일 없으면 집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. 외식을 할 경우 팁을 내야 하므로 자신이 먹은 밥값의 15%정도를 내면 됩니다</p>
교통	<p>통학방법, 시내교통 관련</p> <p>통학은 집마다 달라서 다른친구는 1시간 걸리는 집도 있는데 우리집은 버스 1번 갈아타야 했지만 생각 보다 가까워서 15분~25분이면 학교 도착할 수 있다.</p> <p>교통은 학교에서 준 1달 무료카드로 부담 없이 돌아 다닐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평일보다 주말에 버스가 많이 안다니고 밤에는 배차 간격이 30분인데 연착되면 더 늦게 오기 때문에 버스는 무조건 기다린다고 생각해야합니다.</p>

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단위: 원

※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.

항목	비용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항공료, 여행자보험	1,858,700	출국 전 사전 납부
유심	5만 9천원	국내에서 구매
외식	20만원	
쇼핑(음식,기념품포함)	40만원	
개인 활동	18만원	
합계	83만 9천원	카드 현금 둘다 사용

5. 출국 전 준비사항

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,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.

. 현지 날씨가 가을 같아서 겹옷이나 긴팔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. 생각보다 옷을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. 그리고 가끔 국물있는 음식이 엄청 땡기기 때문에 라면을 몇 개 챙겨가는 것도 좋습니다. 저는 환전을 5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를 체크카드를 사용했는데 괜찮습니다. 그리고 수건을 넉넉하게 챙겨가시고 홈스테이 방문이 안잠길수 있기 때문에 돈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캐필라노

- 키칠라노 beach pool
- 맥아더 글랜 디자이너 outlet
- UBC
- 그라우스 마운틴
- Cortem dout
- Stanley park
- Deep cove(카약&하이킹)
- White rock
- Timholton
- Samuri sushi
- Wreck beach
- Downtown club [x] Queen elizabeth park
- [x] Victoria
- [x] Whistler
- [x] Vancouver aquarium
- [x] Oakridge
- [x] Steveston village
- [x] Lookout
- [x] Gastown
- [x] Canada place
- [x] Mural festival
- [x] Cinema pub
- [x] Vancouver Museum

6. 본인 소감 및 평가

본인의 경험담, 느낀점,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.

3주동안 영어 실력이 엄청 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말하는 게 편해졌고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. 또한 다른 나라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친해져 여행도 같이 다니면서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영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 3주동안 정말 다양한 것을 경험 하면서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도 많이 느끼고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.

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

Lookout



스탠리파크 자전거



Mural festival



키칠라노 beach pool



캐필라노 브릿지

Vancouver Museum